

번역가 연구: 유형기, 본격 기독교 번역자*

최 효 은
(한동대)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유형기 목사(柳滢基 1897~1989, 이하 호칭 생략)의 번역자로서의 업적과 그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유형기는 개신교 감리교단의 목회자이자 출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는 신·구약 성경 전권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주석서 『단권 성경주석』(1934)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명사전으로 알려진 『세계인명사전(서양편)』(1973)을 비롯하여 신학, 목회, 인물 및 역사 등 다양한 기독교 서적을 번역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번역자’¹⁾로서의 그의 면모를 살펴보고(5장),

* 본고에서는 ‘translator’를 의미하는 용어로 대가(大家)라는 의미의 ‘번역가’와 번역행위를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번역자’(者) 모두 사용한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 번역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번역자’, 업적이 남달라 대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번역자에 대한 연구를 일컬을 때는 ‘번역가’를 사용한다.

이어서 어떤 점에서 유형기를 ‘본격’ 기독교 번역자로 일컬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6장). 5장은 유형기 개인의 업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미시사(微視史, micro-history)적이고 일대기적이라면, 6장은 관련 역사맥락의 흐름 안에서 그의 업적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巨視)적이고 번역사(翻譯史)적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본고의 연구 종류 및 방법을 기술하고(2장), 핵심 개념인 ‘기독교 번역자’와 그에 관계된 개념들을 정의한다(3장). 그리고 유형기에 대한 기존 서술과 평가도 살펴봄으로써 번역학 연구자의 관심이 미치기 이전에는 유형기를 역사적 인물로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4장).

2. 연구의 종류 및 방법

본 연구는 번역사(翻譯史) 연구의 일부인 ‘번역자’(翻譯者) 연구이다. 필자는 번역사 연구를 <도식 1>과 같이 개념화한다. 즉, 문헌적 사건으로서의 번역에 관한 내사적(內史的) 연구, 사회적 사건으로서의 번역에 관한 외사적(外史的) 연구, 그리고 번역의 행위적 주체인 번역자에 초점을 맞추는 번역자 연구를 수행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역사 속의 번역, 번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내사적 번역사 연구나 외사적 번역사 연구, 그리고 번역자 연구는 특정 맥락의 번역사 연구를 위해 과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하나의 완결된 연구로 제시될 수도 있다. 즉, 본 연구는 관련 번역사 맥락, 즉, 기독교 번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시기의 기독교 번역을 이해하기 위한 작은 일부이지만, 이 자체도 주목할 만한 번역 업적을 가진 번역자의 삶과 업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번역사의 맥락에서 그의 업적이 가지는 가치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번역자 연구이기도 하다.

1) 헬라어 ‘Χριστός’(크리스토스), 라틴어 ‘Christus’(크리스투스)에서 온 영어 ‘Christ’를 음역한 한자어 ‘基督’(기독교)는 어의적으로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를 가리키므로, 따라서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뿐 아니라 천주교와 그리스 정교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화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는 용어가 유독 개신교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김부림 2010). 본고에서도 기독교는 개신교만을 가리킨다.

방법적 차원에서 보자면, 본 연구는 특정 인물의 삶과 업적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전기연구, 자서전연구, 개인일대기연구, 생애사 연구(life-history research, biographical research, 박성희 2016: 191)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번역 업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를 확인한다는 것은 결국 언제 어떤 번역서가 나왔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의 ‘번역서지’(translator bibliography, 혹은 번역가 서지, 번역자 서지) 및 관련 서지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체계서지학 혹은 열거서지학(systematic/enumerative bibliography) 방법이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룬다. 여기에서 번역서지란 특정 번역자의 번역물만을 정리하고 있는 목록으로, 하몬(Harmon 1981: 5)이 세분화한 체계서지학 방법 중 하나인 ‘저자서지’(author bibliography), 즉, 특정 저자의 저작물 목록을 필자가 응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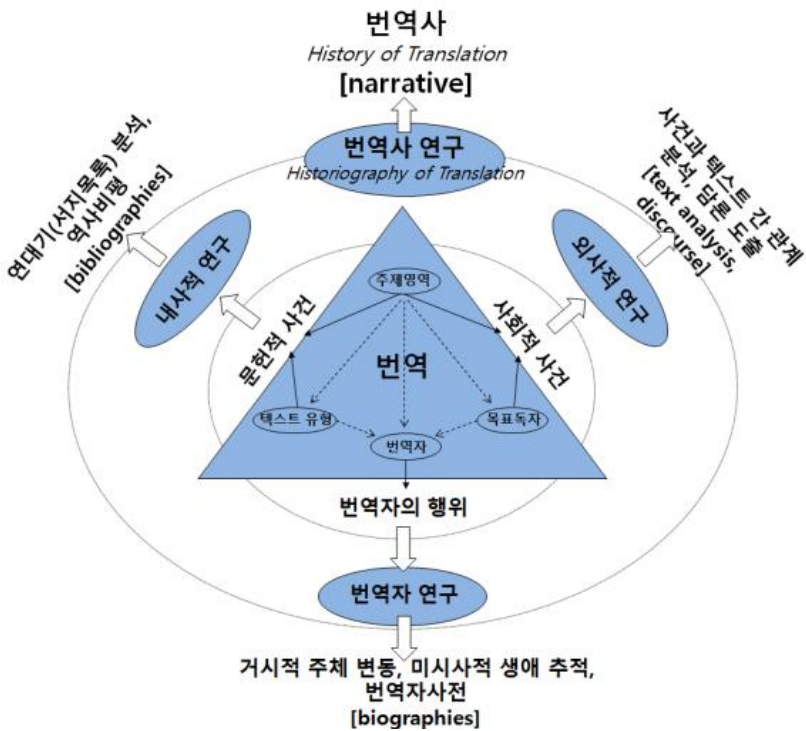


그림 1 번역사 연구의 체계 (최효은 2016b: 192)

유형기의 번역 업적은 두 가지 방향에서 조사하여 종합했다. 한 가지는 주요 도서관을 검색하여 그의 업적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헌에서 그의 업적으로 언급된 번역물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전자의 조사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저작물들에 한정되고, 하문의 분류에 따르면 특정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목록을 가리키는 ‘소장서지’(catalogue, *ibid.*)에 기반한다. 후자는 다른 출판물 등에 홍보의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의 번역서 목록을 나열하면서 포함된 번역물이나 유형기에 관한 생애사 자료들에서 언급된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장서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기록서지’(documented bibliography)라는 개념과 용어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즉, 후자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번역물(혹은 저작물)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특정 번역자(혹은 저자)의 업적을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물로 남아있는 업적들 뿐 아니라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업적들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상과 같은 개념과 용어를 제안하는 바이다.

3. 핵심 개념: 기독교 번역자

본 연구는 한 인물을 ‘기독교 번역자’(translator of Christian texts)로 규정하여 역사적 조명을 시도하고 있느니만큼 기독교 번역자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번역자란 ‘기독교 번역’(translator of Christian texts)이라는 번역 실천, 실무(*practice*)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겠다. 이 정의는 다시, 그렇다면 기독교 번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대해, 기독교 번역이란 ‘기독교 텍스트’(Christian texts)를 번역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는 또 다시, 그렇다면 기독교 텍스트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성경 번역이론가이자 번역자인 나이다(Eugene A. Nida)²⁾는 종교 텍스트

2) 나이다(Eugene A. Nida, 1914~2011)를 ‘성경 번역자’로 지칭한다고 해서 나이다가 성경이라는 원문에 대하여 문학작품을 원문으로 한 번역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번역자가 대체로 쉽게 특정되는 문학작품이나 일반 출판물들과 달리 성경은 개인역을 표방한 역본(예를 들어,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의 *The*

(religious texts)를 두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과거 혹은 현재의 신앙인들이 가진 신앙의 양상과 실천에 관해 논하는 텍스트이고, 두 번째 유형은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텍스트, 즉, 신앙의 형성에 근간이 되는 텍스트, 경전(經典)이다(Nida 1994: 195)³⁾. 이 구분을 기독교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Bible)은 두 번째 유형에 포함되고,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독교 관련 서적, 문서 등은 모두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첫 번째 유형의 텍스트들을 기독교 텍스트로 정의하기로 한다. 나이다의 개념 구분에 기대어 이 정의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기독교 텍스트란 기독교에 관계된 성경 이외의 텍스트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양상과 실천을 논하는 텍스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텍스트는 실제 어떤 텍스트들을 포함하는가? 기독교계에는 한국기독교출판협회⁴⁾라는 단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출판상을 시상

Message 등이 아닌 경우 일군의 번역자 집단에 의한 공동역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그는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ABS)에서 이루어진 성경번역 과정에 성경을 번역하는 새로운 이론과 방법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실습법과 교수법을 개발, 실행하는 자문관으로서 성경번역 과정에 참여하였다. 즉, 본고에서 나이다를 ‘성경번역자’로 지칭한 것은, 집단적 작업의 산물인 성경번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번역이라는 과정에 텍스트적 전환만이 아니라 해당 번역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절차를 포괄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번역자의 개념에 대한 이 같은 광의의 접근은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역이 일반적인 성경번역의 경우 나이다와 같이 번역 결과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여를 한 번역(과정) 참여자에 대해서는 성경번역자라는 지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일례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역본으로 알려진 ‘로스역’의 경우, 로스(John Ross) 선교사의 이름을 따온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로스 선교사는 번역 감수자로서 참여하였다. ‘조사’(助師)로 일컬어지는 한국인 번역자들이 중국어역 성경을 참고하여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 결과물을 영어 및 그리스어 성경과 비교함으로써 번역문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번역자의 범위를 좁게 보아 접근한다면 해당 역본은 ‘로스역’이라 불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필자는 이 같은 사례들에 관한 과거 사실들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칭의 타당성 여부를 재고하는 데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성경번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인식에 기반 한다면, ‘로스역’을 로스역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이다를 성경번역자로 지칭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 3) “The phrase “religious texts” may be understood in two quite different senses: (1) texts that discuss historical or present-day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of a believing community and (2) texts that are crucial in giving rise to a believing community.”

하고 있을 만큼 출판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 협회의 회원 출판사들 가운데 출판물 분류가 비교적 전형적이라고 판단되는 출판사의 사례를 들면 <표 1>과 같다.

나이다의 구분을 적용하여 <표 1>을 이해한다면 대분류 1번 기독교 기본진리가 성경을 포함하는 분류이고, 나머지 2번에서 12번까지가 기독교인들의 현재와 과거의 신앙의 양상과 실천을 보여주는 첫 번째 유형의 출판물들이다. 여기에는, 성경과 관련하여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경주석을 비롯한 신학서적들 뿐 아니라 기도생활이나 묵상 등 생활영성에 관한 텍스트로부터 기독교세계관과 학문, 윤리, 전도 및 선교, 상담, 역사, 인물, 교재 등 다양한 세부 분야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 같은 실제 현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텍스트’란 “기독교 경전으로서의 성경을 제외한 기독교에 관한 텍스트로 기독교인이 생산했거나 기독교인들을 위해 생산된 텍스트”라고 정의하기로 한다.⁵⁾

-
- 4) 한국기독교출판협회(Korea Christian Publication Association, <http://kcpa.or.kr/>). 출판사들의 협력 단체로는 대한출판문화협회(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http://www.kpa21.or.kr/>)가 대표적인데 전 분야의 출판물들을 대상으로 13개 분야로 나누어 해마다 신간 발행 종수 등의 출판통계를 낸다. 기독교출판처럼 개발 분야의 출판물을 취급하는 출판사들의 협회로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Korean Science & Technology Publishers Association, <http://www.kstpa.or.kr/new/>)와 불교출판협회(<http://www.kstpa.or.kr/new/>)가 있다.
- 5) 어의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니 ‘기독교 텍스트’의 일종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성경 이외의 기독교 관련 텍스트만을 기독교 텍스트라고 지칭하는 것은 하위범주를 상위범주로 지칭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능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먼저 성경은 각 종파 별 세부구성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상당 부분이 유대교, 천주교와 공유되고 있다(개신교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유대교의 성경은 개신교 성경 중 구약성경에 해당하고, 천주교는 개신교의 구약과 신약에 외경을 포함한다.) 즉, 성경은 반드시 기독교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텍스트가 아니다. 또한 성경은 학문영역에서나 일반 화용적 맥락에서나 성경이라는 고유한 명칭으로 잘 통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그것을 지칭하기 위해 다른 별도의 용어를 둘 필요가 없는 이미 독자적인 지위와 존재감을 가진 텍스트이다. 반면에 성경 이외의 기독교 텍스트들은 첫째, 성경과 달리 기독교에만 귀속된 텍스트들이다. 둘째, 그 실제의 활발함에 비추어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거나 일반 교양대중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라는 가장 기초적인 명칭을 가지고 여타의 텍스트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텍스트에 대한 이 같은 정의에 따라, 기독교 번역자란 기독교인이 생산했거나 기독교인들을 위해 생산된, 성경 이외의 기독교에 관한 텍스트를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본고의 연구대상인 유형기가 어떤 점에서 기독교 번역자로 혹은 본격 기독교 번역자로 규정될 수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한다.

〈표 1〉 기독교 텍스트의 주제별 분류 사례⁶⁾

대분류	소분류
1 기독교 기본진리	-
2 성경연구	성경사전, 성경주석, 성경강해, 성경읽기, 성경해석, 연구가이드
3 신학	신학일반,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해석학, 평신도신학
4 생활영성	제자도, 영적성장, 영적분별, 영성지도, 기도생활, 쉼, 성령/부흥, QT/묵상, 리더십, 직업/소명
5 세계관/학문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윤리, 사회참여/이슈, 한반도평화, 과학과 신앙, 기독교 교육, 학문일반, 인문학, 정치/경제/경영, 자연과학
6 교회/선교	학생선교운동, 전도/변증, 소그룹, 선교, 교회론/공동체, 교회사, 복음주의, 예배/찬양, 목회/설교
7 상담/심리/관계	상담심리, 자아상/정체성, 고통의 문제, 이성교제, 성, 내적치유, 대인관계
8 가정/결혼/어린이	남성/여성, 결혼생활, 부부의 성, 독신/이혼/재혼, 자녀양육, 어린이
9 문화/예술	예술일반, 문화일반, 문헌운동, 음악/미술, 영화, 스포츠, 대중매체, 커뮤니케이션
10 인물/전기	인물연구, 전기/평전
11 소책자	-
12 교재	-

6) Inter-Varsity Press, <http://www.ivp.co.kr/bookinfo/index.php?ctpose=NEW> (2017.03.31. 방문)

4. 기존 서술 및 평가

4.1. 생애 요약⁷⁾

유형기는 1897년에 출생하여 1989년까지 아흔 두 해를 살았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해이자 서른 이 된 1927년부터 60여 년간 직·간접적으로 출판업에 종사했다. 1927년에 그는 신생사(新生社)라고 하는 출판사를 설립하였고 『신생』이라는 청년잡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독교 서적들을 번역·출판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사실상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기독교 번역에 헌신했다. 첫 번째 발췌는 그가 죽기 한 달 전인 1989년 5월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이고, 두 번째 발췌는 임종 당시에 대한 기록이다.

준직아, 봐라. 사무엘-엘왕기 원고와 교정지를 잘 받았다. 오늘 의사한테 갔더니 폐렴이 낫지 않고 더 악화되어 입원해야겠다고 해서 입원한다. ... 친구약 합본(3천부) 표지는 우피(牛皮)로 하고 1천부는 포(包)클로스나 비닐로 할 터이니 두 가지를 비교해 봐라. 신약 교정 잘 해서, 네가 하루 앉아서 잘 비교해 본 후 OK하거라. (<발췌 1> 고정일 2012: 279)

“...삼십일만 참아 주시면 구약을 마치고 갈 터인데 이 자식 데려다 뭘 하 시려고 다려가렵니아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뜻이면...” 눈을 감기 며칠 전 병원 침대에서 쓰다가 손이 떨려 더 못 쓰고 붓을 놓은 마지막 글이다. (<발췌 2>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위원회 편 2002: 133)

유형기는 평북(회천) 지역에서 출생하여 영변에서 초중등 과정(송덕학교, 1906~14)을 마치고 서울(배재학당, 1914)과 평양(송실학교, 1914~16)에서 학업을 이어가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했다(동경 청산학원, 1918~21). 일본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웨슬리안대학(1921~23, 문학), 깨렛대학(1923~24, 신학), 보스턴대학(1924~27, 신학석사), 하버드대학(1926~27, 문학석사) 등에서 수

7) 유형기의 생애에 관한 정보는 기독교 관련 인물사전류와 교회사 및 출판사 문헌, 그리고 유형기 및 다른 인사들의 자서전, 유형기가 출판에 참여한 출판물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참고문헌에 나열). 각 자료 간에 연도 등의 세부 정보가 상충하는 경우 유형기의 자서전과 유형기가 출판한 출판물의 기록을 중심으로 차이를 조정했다.

학하였다. 보스턴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한 기간을 겹치는 이유는 그가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학점교류 프로그램으로 두 대학의 과목을 수강하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귀국 후 개인출판사인 신생사를 설립하여 출판에 뛰어들 것 외에 유흥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1927~41)에서 교계 내 경력을 시작하였다. 1949년부터 53년까지는 감리회 신학교 교장(9대), 1951년부터 58년까지는 감리회 감독을 역임했다. 해방 후 미군정청 시절에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인쇄소인 ‘조선인쇄주식회사’의 관리책임 맡기도 하였다. 이후 웨슬리안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 보스턴대학과 연세대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그럼 신학계(혹은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어떤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2. 신학에서의 평가: ‘저술가’, ‘문서운동가’

기독교 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에서 낸 『基督教 大百科事典』(1980-1995)에서는 유흥기의 생애를 ‘감리교 목사’, ‘감독’, ‘저술가’로 요약했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위원회의 『한국 감리교 인물사전』(2002)에서는 그를 ‘문서운동가’라고 표현했다. 여기에서 문서운동가라 함은 문서 발행을 통해 기독교의 신앙과 지식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학계에서는 그를 교계 지도자로, 저술가 내지 출판인으로서 기독교계에 기여한 인사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계 내 그의 평판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962년 6월 초인가 내가 학기를 마치고 여름 아르바이트를 위해 떠나기 직전에 유흥기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분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너무나 고명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나 같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이 분은 보스턴대학 출신으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도 받았고 또한 미국 감리교 선교부가 주관하는 십자군 장학금(Crusade Scholarship)을 통해 1950년도 전후에 감리교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을 무수히 배출하였다. 특히 이 분은 6·25 동란 중에 폐허가 된 우리 사회와 교회를 복구하는 데 공헌이 많은 어른이셨다.

(<발췌 3> 『희망을 낳는 자유』中, 이계준 2005: 102)

한편 유형기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⁸⁾ 중 개신교 부문에 선정되었으나 보류된 바 있다.⁹⁾ 이는 일제 말기 한국교회의 친일 행적과 관련된 것이다. 장로교는 1938년 9월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고, 감리교의 경우 같은 해 10월 제3회 총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남산 조선 신궁에 가서 신사참배한 바 있다. 기독교계는 여기에 대해 선교대회 등에서 신사참배를 누우치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에서 연회 차원에서 ‘신사참배 회개 결의’를 채택하였다.¹⁰⁾ 이 연회에 참석한 감리교신학대학의 이덕주 교수(한국교회사)는 이 같은 결의에 대해 “민족적 양심과 신앙을 지켜야 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적 고백”이라고 평가하면서 유형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하지만 그(이덕주)는 “당시 감리교 내부에서는 정춘수 감독을 중심으로 한 ‘혁신교단’ 지도부의 친일노선 반역행위에 맞서 이윤영, 유형기, 양주삼, 이규갑, 송홍국, 문창모, 마경일 등이 반대운동을 펼쳤고, 강종근 목사와 권원호 전도사, 최인규 권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쟁하다가 옥중순교했다”며 감리교단의 신사참배에 대한 내부적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고 밝혔다. (<발췌 4> 각주 10번 인터넷자료와 동일)

즉, 유형기가 교단 내적으로는 신사참배에 저항한 인사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예정이었으나 보류된 것도 이 같은 기독교사학계의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학계에서는 그를 어떤 인사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89220 (2017. 4. 29)

9) <https://www.newikis.com/ko/wiki/%EC%9C%A0%ED%98%95%EA%B8%B0> (2017. 4. 29)

10)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62759/20130408/기감-서울연회의-신사참배-회개-배경과-의미는.htm> (2017. 4. 29)

4.3. 출판학에서의 평가: 본격 영한-한영사전 출판인

고정일은 『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 한국근현대출판문화사』(2012)에서 유형기를 ‘최초 본격 <영한사전><한영사전> 신생사 류형기’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앞서 그의 생애를 요약하며 그가 미군정청 시절 조선인쇄주식회사의 관리책임을 맡았다는 언급을 하였는데, 다음은 당시에 관한 기록이다.

그때(1945년 10월) 조선인쇄를 맡고 첫 출판으로 낸 것이 4·6반절, 빨간 표지를 한 <영어회화>였다. 이때 영문 교정은 미군 사병 엘리어슨이 도와 주었다. <영어회화>를 책으로 묶어 시중에 내놓자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다. ... 자전거 한 대를 빌려 아침에 한 자전거 싣고 나가서 점심때까지 다 팔고, 오후에 또 싣고 나가면 저녁 전에 다 팔기를 여러 달 계속했다. 단숨에 10만부를 찍어냈으니 놀라운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회화 책으로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 해방 기념으로 펴낸 <신생영한사전>(1946)이었다. ...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간 시기를 맞추느라 오역과 오자가 많아 유감천만이었으나, 한국에서 처음 나온 본격 영한사전인 까닭에 대체로 평이 좋았고 판매량 또한 수년간 독보적이었다. ... 해당 둘째 돌맞이로 낸 것이 <신생한영사전>이었다. 이 또한 호평을 받았으며, 몇 해 뒤 예일대학에서 한국 학자들을 초청해 영한·한영사전을 편찬할 때 이 신생 사전들을 많이 참고했다고 한다.

(<발췌 5> 고정일 2012: 372-373)

즉, 그는 미국을 유학하고 귀국 후 영문 텍스트의 번역에 힘쓴 인사로서 영어회화 뿐 아니라 영한 및 한영사전의 편찬에도 기여한 바가 있는 것이다. 유형기라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편찬한 사전이 우리나라 초창기의 본격 영한·한영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대기업의 대형출판사에서 편찬한 사전에 익숙한 오늘날의 연구자로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5. 기독교 번역자, 유형기

5.1. 번역 동기와 과정

유형기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신생사(新生社)를 설립한 1927년부

터 세상을 떠난 1989년까지 60여년 이상 아래의 발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은 동기와 과정으로 기독교 번역에 힘썼다.

1927년 귀국했을 때 유형기는 한국의 청년들과 열악한 교회 환경을 보고 ‘좋은 책을 쓴 값으로’ 젊은이들과 목사, 신학생, 주일학교 교사에게 하루 빨리 읽을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좋은 책을 어디서 구하느냐가 문제였다. 교회서적이라고는 성서공회에서 성경, 창문사에서 기일역 성경, 예수교서회에서 그 밖의 책들을 내는 정도였다. 그 책들은 장로교와 감리교 계통 선교사들이 서기들을 데리고 번역해서 보수적 교리와 어긋나는 내용은 검열을 통해 가차 없이 지워 버리곤 했다. ... 유형기는 옥스퍼드, 산세이도 영어사전을 옆에 놓고 우선 미국에서 널리 읽히는 종교 서적들부터 번역을 시작했다. 출판인쇄비는 미국 친구들에게서 원조 받았다. (<발췌 6> 고정일 2012: 368-369)

즉, 유형기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유입되어 빠르게 전파되는 가운데 기독교의 신앙과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서적들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할 목적으로 번역과 출판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외국인 선교사 중심의 기독교 번역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왜 그가 ‘본격’ 기독교 번역가로 불릴 수 있는지와도 관련이 깊다. 이 점은 이후 상술하겠다.

한편 그의 번역 방법은 근대시기의 학술 및 문학번역이 일반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번역을 중역(重譯)하는 방식이 아니라 번역하고자 한 원문인 영문으로부터의 직접 번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그가 번역한 원서와 번역서의 발행 시점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도 증명된다. 예를 들어 유형기가 번역하여 1930년에 출판된 『基督과 實際問題』(朝鮮監理教聯合 圖書出版委員會)는 그 저자와 원문을 확인해보면 Rollin H. Walker의 *Jesus and our pressing problems* (Abingdon press)인데, 이 원서의 발행연도 역시 1930년이다. 원서의 저자인 Walker는 유형기가 수학한 웨슬리안대학의 교수로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 원서의 분량은 208페이지로 비교적 적은 편이기는 하다. 하지만 당시에 어떻게 이런 정도의 동시성을 가지고 번역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고 더 조사해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유형기가 1930년대

“당시 영어를 할 줄 아는 학자들을 총동원”(이덕주 2009: 237)하여 번역했다는 『單券 聖經註釋』(신생사)은 1934년에 역간되었는데, 그 원서는 분량이 1,452페이지에 이르는 1929년 발행의 *The Abingdon Bible Commentary* (Abingdon press)이다. 원서와 번역서의 발행연도가 5년의 차이 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발췌한 마지막 부분에 출판비용을 미국 친구들에게 원조 받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원서의 선정과 조달 등 번역 과정에서도 유학하는 동안에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의 역할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출발문화권과의 이 같은 직접적인 관계가 유형기의 번역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가 남다른 번역 업적을 보유할 수 있었던 원천이기도 했을 것이다. 다음에서 유형기의 번역 업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5.2. 번역 업적

유형기는 60여년 이상을 기독교 번역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가 이룬 번역 업적의 전모를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도서관의 소장자료(소장서지)를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하되, 문헌에 언급된 서지(기록서지)를 참고하여 종합하는 방식으로 그의 번역 업적을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도서관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도서관이다.¹¹⁾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립도서관 사이트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련 조사에서, 근대시기 기독교 출판물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이 두 대학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대학의 도서관에서 ‘유형기’(혹은 ‘류형기’)를 검색하여 그의 저작물에 대한 각각의 소장서지를 정리하고, 문헌자료에서 그의 번역으로 언급되고 있는 서지들을 정리하여 소장서지 간, 그리고 소장서지와 기록서지 간 중복과 중판(重版)을 제외하고 통합했을 때 유형기라는 번역가를 중심으로 한 서지목록, 즉, 유형기의 번역가 서지가 만들어졌다.

11) 연세대학(<http://lib.ewha.ac.kr/>), 이화여자대학(<http://library.yonsei.ac.kr/>)

〈표 2〉 유형기의 번역가 서지(translator bibliography)

1	1930聖經十講	유형기 柳滄基
2	1930福音과 實際問題	Walker, Rollin Hough
3	1930로想想	Singh, Sadhu Sundar
4	1931福音의 眞髓	Brown, Charles Reynolds
5	1931現代科學과 基督敎	유형기
6	19311900년 뒤의 예수	티들
7	1931나는 어떻게 믿는다	티들
8	1931나사렛 예수	크로
9	1932新約文學概論	유형기
10	1932예수의 생애	Roll, Harris Franklin
11	1932宗敎의 本性	Coffin, Henry Sloane
12	1932現代 敎會와 宗敎敎育	Bower, William Clayton
13	1932基督敎史	Walker, Williston
14	1933大衛 소크라테스 : 플라토의 다이아독 3篇	유형기 柳滄基
15	1934單卷 聖經註釋	유형기 柳滄基
16	1935福音의 使命	Barclay, Wade Crawford
17	1936가장예배서	유형기
18	1938舊約 文學概論	유형기 柳滄基
19	1939교단의 생활	유형기 柳滄基
20	1939신자의 의무	유형기 柳滄基
21	1939나사렛 예수	Barton, George A. (George Aaron)
22	1939白沙堂先生小傳	유형기 柳滄基
23	1940靈力의 人 內容	Walker, Rollin Hough
24	1946哲學史話, 上卷	Durant, Will
25	1947나는 어떻게 믿는다	Moore, Arthur J. (Arthur James)
26	1947哲學史話, 下卷	Durant, Will
27	1953요한 웨슬레	유형기 柳滄基
28	1954哲學史話	Durant, Will
29	1956Korean Methodism to-day	유형기 柳滄基
30	1956Report on Korean Methodism	유형기 柳滄基
31	1957관음 소망 사랑	Brunner, Emil, 유형기
32	1957서상의 소망	Crowe, Charles M
33	1960성서사건	유형기
34	1965성서주해, 1	유형기
35	1966성서주해, 2	유형기
36	1967성서주해, 3	유형기
37	1968성서주해, 4	유형기
38	1973世界 人名 大事典 西洋篇	유형기 柳滄基
39	1976단권 성서주석	유형기
40	1977신약시대 역사와 연결개론	Pfeiffer, R. H
41	1978아시아의 성 프랜시스	유형기 柳滄基
42	1978십이제자 열거사도 탐문기	유형기
43	1978요한 편지	유형기
44	1979기독교회사 / 3권	Walker, Williston Handy, Robert T. 유형기
45	1980가브리엘 원근	Sandburg, Carl
46	1980성서대사전	유형기
47	1981단권 성서주해 / 증보판	유형기
48	1981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탄이야기 101편 명상 실고집	유형기 柳滄基
49	1983리포의 성 여거스틴	유형기 柳滄基
50	1983은총의 팔십오년 회상기	유형기 柳滄基
51	1984가축기도서 : 신약과 기도문	유형기
52	1984위던, 명사들의 일화, 소담, 유연집	유형기
53	1985베를레델의 경자 제물	유형기 柳滄基
54	1985가축기도서 구약편	유형기
55	1987영한 금언사건	유형기
56	1987영한대조 신약전서 신역	유형기
57	1988찬송과 예배	유형기
58	1992감경의 구십년	유형기 柳滄基
59	연도미상 신약개론	유형기
60	연도미상 구약개론	유형기

여기에는 1930년부터 1992년까지, 그리고 연도미상의 2종을 포함하여 총 60종의 서지가 포함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중판본들까지 포함하여야 유형기

의 번역이 갖는 실제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얼마나 많은 건(件)의 영문서적을 번역하였는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 중 서지정보만으로 번역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즉, (1) 외국인 저자를 원저(原著)로, 유형기를 역술(譯述) 등으로 표시하고 있거나 (2) 서문 등에서 원문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32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국인 목회자에 대한 평전 1종과 유형기 자신의 자서전 2종, 그리고 한국의 교계 상황에 관하여 영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종을 제외한 55종은, 문헌자료 등을 참고할 때, 사실상 영문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번역서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형기의 번역가 서지는 기독교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양한 세부주제를 망라하고 있었다. 앞서 <표 1>에서 기독교 텍스트의 다양한 세부주제를 나열하였는데, 그 분류를 토대로 유형기의 서지를 분석하면 <도식 2>와 같다.



즉, 유형기의 서지는 <표 1>에서 나누고 있는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7번 상담/심리/관계와 11번 소책자, 12번 교재를 제외하고, 9개의 세부주제에 관한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기가 감리교단의 교육국에 14년이나 몸담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그가 소책자나 교재의 집필과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그러한 저작물들은 정식 발행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가 소책자나 교

재집필에도 관여했다면 그 과정에는 번역 작업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유형기가 다양한 분야의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였다는 것은 그를 ‘본격’ 기독교 번역가로 일컬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번역 실무에는 학술번역 차원에서 번역하는 학자 번역자 집단과 특수목적번역 (translation for special-purpose texts) 차원에서 번역하는 전문 번역자 집단이 공존한다. 학자들은 주로 신학서적을, 전문 번역자들은 주로 일반 대중과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적들을 번역하지만 두 번역자 집단이 번역하는 세부 영역이 교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필자 자신도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독교 번역 실무에서는 전문 번역자 집단에 속하겠으나 성경연구와 신학, 세계관 및 학문으로 분류되는 기독교 서적들을 번역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기독교 번역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과 기독교라는 주제 지식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어 번역의 품질을 고려할 만큼 번역의 수용이 성숙되어 있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유형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학자 번역자들이 주로 번역하는 영역과 전문 번역자들이 주로 번역하는 영역 모두를 섭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격 기독교 번역가로 일컬어 질 수 있는 것이다.

5.3. 번역 전략

앞서 유형기는 일본어나 중국어 서적을 중역한 것이 아니라 영문 텍스트를 직접 번역하였고, 원서와의 발행 격차도 크지 않게 번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번역 전략 측면에서 찾아본다면, 그의 번역이 대체로 편역이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유형기의 저작물에서 그는 편, 역술, 역편, 편저자 등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표시는 그가 편집 혹은 번역의 대상으로 삼은 영문 텍스트를 전면번역 하였기 보다는 편역 하였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상기 60종의 서적을 모두 실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면밀하게 분석한 바 있는 『단권 성경주석』(1934)의 경우 그는 전체 편집자이자, 목차 기준 총 107개 중 35개 장(약 33%)에 대한 역술자로 표시되는데 <사례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대적인 삭제적 편역을 실시하였다. 즉, 원문의 각 문장에 일련번호를 매기고 각 문장에 대한 번역을 확인해 볼 때, 원서의 20개 문장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번역된 문장은 6개(약 30%)에 불과했다.

참고삼아 단어 수를 비교하면 원문은 533단어, 번역문은 84단어로 약 16%이다.

〈사례 1〉 유형기의 편역 사례 (최효은 2016a: 106-108)

ST	TT 한글역
<p>The Christian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Scripture By Bishop Francis J. McConnell</p> <p>The Historical Approach. (1)The first requisite in the Christian's use of the Scriptures is an honest intent to find out what the Scriptures meant to the people who first read them. (2)We have moved pretty well away from the notion that the biblical writers had in mind the long future in composing their books. (3)If they had thus written for the after-ages, their own periods would not have understood them, (4)and the writings would thus have failed of any immediate purpose. (5)Set forth, however, to meet an urgent current need, the Scriptures can at least be made intelligible for all time. (6)There must be, though, the resolute purpose to discover what the utterances meant for the day in which they appeared. (7)Here is the Christian sanction for all manner of earnest scientific investigation of whatever sort - historical, archaeological, linguistic. (8)To get a sound meaning for the readers of a later time we must first know the meaning intended for the first readers. (9)It may well be that the Scripture writers wrote more profoundly than they knew, but we must start with their first meaning.</p> <p>(10)Perhaps it would be better to say that we must know, first of all, not so much what the first readers understood the Scriptures to mean as what the writers intended to say. (11)In other words, we must ask as to the purpose of the various books. (12)The school of biblical study associated with the name of Baur and his followers rendered lasting service in bringing out into the light the part played by "tendency" in the creation of certain N.T. documents. (13)It is true that the Baur group were themselves so much under the influence of the Hegelian doctrine of thesis, antithesis, and synthesis that they allowed themselves unwarrantable liberties in dating and classifying N.T. material; (14)but the fact that they had a wrong formula should not break the force of their having seized upon a true principle, namely, that the N.T. writers wrote on the basis of assumptions and presuppositions and out of theological tempers and in religious and social atmospheres. (15)It is our duty to take account of all such factors, imponderable and elusive as they often are. (16)There can be no doubt - though this applies especially to the O.T. - that</p>	<p>육. 기독교인의 성경관 [역사적] (1)/①성경을 읽는 우리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곧 성경을 쓴 이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 하는 것이다. (2)/②그들은 먼 미래를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에게 막두하였던 여러가지 난관을 타개하며 여러가지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3)/③만일 그들이 먼 장래를 생각하고 썼을 것이면 그때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5)- (6)- (7)/④그러므로 금일의 우리는 역사적, 고고학적, 언어학적, 곧 모든 참다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의 써어진 근본목적을 연구하여야 될 것이다. (8)/⑤동시에 성경을 쓴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하였던 이상 진리가 풍요하고 의의가 심원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어 준 것도 기억하여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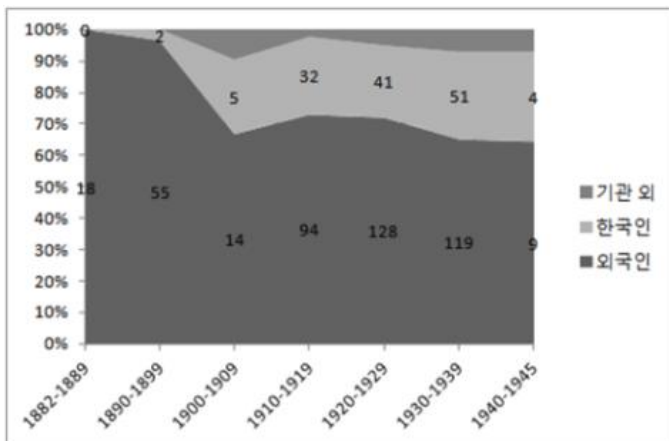
<p>passages having to do with Israel's history have been rewritten, or at least re-edited, more than once, from differing if not from opposing points of view; as, for example, in the treatme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onarchy by Samuel. (17)Any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a Scripture passage must ask persistently as to what the author was trying to do. (18)For practical, and especially for homiletic purposes, it is permissible for a reader of the Bible to resort to any use of Scripture he pleases, (19)provided that he makes clear that the use is his own and not that warranted by the meaning of the text itself. (20)The best course here is to tell what the passage means and then to avow frankly the purpose to use it without reference to that meaning. (a)(See art., How to Study the Bible, pp. 5-8.)</p>	<p>될것이다.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⑥(「성경연구의 방법」 참조). -</p>
---	--

필자가 텍스트분석을 통해 번역 전략을 확인한 것은 비록 1종의 번역서에 불과하지만 문헌자료나 서지정보를 참고한다면 다른 번역서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그가 1960년에 발행한 『성서사전』의 경우, “<헤스팅스 성경사전>, <퐁크-웁달스 대표준성경사전>, <하퍼 성경사전>, <일본 성서대사전> 등을 참고해 <성서사전> 원고를 준비”(고정일 2012: 374)했다는 기록이 있고, 1965년부터 1968년까지 4권으로 발행한 『성서주해』도 “<Interpreters Bible> 12권을 4권으로 줄이기로 했다”(ibid.: 376)고 언급된 바 있다. 물론 이상의 사례들은 주석서와 사전으로 정보적 성격이 있는 텍스트들이라 번역자의 판단에 따라 편집하기에 비교적 용이했을 수 있다. 일반 신학서로 분류할 수 있는 『基督敎의 眞髓』(1931)의 경우 그 분량이 191페이지, 원서(Why I believe, 1924)는 175페이지이다. 인물/전기류에 속하는 『靈力의 人 바울』(1940)의 경우 그 분량이 179페이지, 원서(Paul's secret of power, 1935)는 181페이지로 번역서와 원서의 분량이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영한번역의 경우 전면번역을 하였을 때 대체로 원문보다 번역문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편역의 기초가 유지되었을 것이라 잠정적으로 추정해본다.

6. 본격 기독교 번역자, 유형기

앞서 5장에서 기독교 번역자로서 유형기의 번역 동기 및 과정, 번역 내역과 그 전략 등을 살펴보면서 중역이 아닌 직접 번역이라는 점, 기독교 주제분야 하에서 학술번역과 특수목적번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세부주제의 서적을 번역하였다는 점 등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기독교 번역가였음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즉, 번역사적 맥락에서 유형기의 기독교 번역자로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유형기의 번역 동기를 구체화하면서 인용한 <발췌 6>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가 기독교 번역에 투신했던 당시 상황은 “교회서적이라고는 성서공회에서 성경, 창문사에서 기일역 성경, 예수교서회에서 그 밖의 책들을 내는 정도”였고, “그 책들은 장로교와 감리교 계통 선교사들이 서기를 데리고 번역해서 보수적 교리와 어긋나는 내용은 검열을 통해 가차 없이 지워” 버린 번역서들이었다(고정일 2012: 369). 즉, 기독교 번역이 아직 충분히 활발하지도 못했고, 내용적으로도 도착문화 수용자들이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한 방향의 기독교 번역을 할 한국인 번역자들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번역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도식 3> 기독교 번역물의 번역자 국적 변동 추이 (최효은 2016b: 205)

기독교 번역물의 번역자 국적 변동 추이에 관한 <도식 3>을 보면, 기독교 유입 초기인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이전까지 기독교 번역자들은 거의 전원이 외국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의 시기에는 한국인 번역자들과 외국인 번역자들이 공존하는데, 태평양 전쟁 이전 미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본 식민지정부가 대한선교사들에 대한 추방령(1941)을 내려 선교사들이 대거 귀국하기 전까지, 외국인 번역자의 비율이 평균 70퍼센트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세기 전반기 우리나라 기독교 번역의 주체는 외국인 선교사였다고 할 수 있겠다. 모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이 보다 진정한 의미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20세기 전반기는 아직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번역이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형기는 비교적 희소한 한국인 번역자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희소한 한국인 번역자들 가운데 유형기의 번역 업적은 얼마나 주목할 만한가? <도식 3>을 도출하기 위해 필자가 수집·정리한 주제서지(subject bibliography), 즉, 1882년부터 1945년까지 출판된 기독교 서적들에 대한 서지목록을 근거로 할 때¹²⁾, 유형기 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국인은 동양서원(東洋書院)의 설립자이자 편집자(혹은 편집자)인 민준호(1877~?)이다. 민준호의 동양서원을 발행처로 하는 서지를 세어 보면 총 21건에 이른다. <표 2>의 유형기 서지를 토대로 하면 같은 기간 유형기는 22건을 번역서를 내어 민준호의 업적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민준호는 대부분 다른 번역자들(이원궁, 백남석, 신석구 등)과 함께 편집자로 표시되고 있고, ‘민준호 역’이 명시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또한 민준호가 발행한 서적(대부분 주석서)들은 그 영문의 원저자 명과 원서 명을 표시하여 그 원천 텍스트가 영문임을 알리고 있지만, 동시에 속표지에 “Translated from the Chinese”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번역 방식이 중역임을 밝히고 있다. 즉,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격적인 번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독교 번역의 관점에서 민준호의 업적은 단기간에만 집중된 한시적인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동양서원은 1911년 설립되어 1930년 전후까지 운영되었다고 알려져 있다(최효은 2016a: 158). 그러나

12) 이 주제서지의 도출 과정은 최효은(2016b) 참고.

필자가 조사한 기독교 주제서지에 그가 등장하는 것은 1911년에서 1913년까지로 3년의 기간에 불과하다. 오히려 동양서원은 신문관이라는 출판사와 함께 1910년대 문학번역의 양대 산맥으로 간주되고 있다(박진영 2011: 인터넷 자료). 민준호의 경우는 당시 수요가 예상되었던 분야인 기독교 분야에 출판사 설립 초기에 한시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유형기의 동시대인으로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번역에 참여한 인사로는 1934년 역간된 『단권 성경주석』의 번역에도 참여한 바 있는 김재준(1901~1987)을 들 수 있는데, 그의 번역서는 이화여대 소장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총 10건(마찬가지로 중판본은 제외)을 검색할 수 있었다. 유형기의 55건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형기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전히 기독교 번역을 주도하던 1930년대 초반에 기독교 번역에 투신한 비교적 최소한 한국인 번역자 중 하나였다는 점, 그러한 한국인 번역자들 중에서도 그는 현대시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독교 번역에 힘써서 그 결과 양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번역서를 냈다는 점에서, 번역사적 맥락에서도 ‘본격’ 기독교 번역가인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겠다.

7. 결론

본고는 다른 모든 역사연구가 그러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결론만을 주장할 뿐이다. 그 잠정적인 결론은 본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법과 범위의 조사를 토대로, 제목에서 예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형기라는 인물을 본격 기독교 번역자로 평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그는 근대시기 일반적인 번역 관행이라고 알려진 중역 대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완전한 형태의 번역인 원문으로부터의 직접 번역 방법으로 번역했다. 또한 그가 번역한 기독교서적들은 오늘날 기독교 텍스트를 분류하는 기준에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세부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는 유형기가 오늘날의 기독교 번역 실무에 학술번역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학자 번역자나, 특수목적번역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전문 번역자 모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전임자임을 의미한다. 셋째, 모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이 보다 진정한 의

미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유형기는 외국인인 기독교 번역을 주도하고 있던 시기에 영한방향의 번역이 모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이었던 비교적 희소한 한국인 번역자이다. 즉, 유형기는 거시적인 번역사적 맥락에서 보아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영한 기독교 번역의 주체와 국적 면에서 동일한 번역자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기는 한국 국적을 가진 다른 번역자들과 비교할 때 그 번역의 업적이 지속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근거들을 토대로 본고는 유형기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다 본격적인 기독교 번역자로 일컬어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향후 좀 더 폭넓고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의 업적을 능가하는 또 다른 기독교 번역가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이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독교 번역과 번역사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로서 관련 후속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고정일 (2012) 『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 서울: 정음사.
- 기독교 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편 (1980-1995) 『基督教 大百科事典』 (1-16권), 서울: 기독교 문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위원회 편 (2002) 『한국 감리교 인물사전』,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 김무림 (2010) ‘그리스도’와 ‘기독교(기독)’의 어원. 새국어생활. 20(1): 93-98.
- 박성희 (2016) 『질적인 생애사 연구방법론』, 서울: 박영스토리.
- 박진영 (2011) 인터넷 자료(<http://bookgram.pe.kr/120147912925>) 2017. 4. 30 확인.
- 유형기 (1983) 『은총의 팔십오년』,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 _____ (1992) 『감격의 구십년』,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 _____ 편 (1934) 『단권 성경주석』, 서울: 신생사.
- _____ 편 (1981) 『단권 성경주해(증보3판)』,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 이계준 (2005) 『희망을 낳는 자유: 이계준 자전에세이』, 서울: 한들.
- 이덕주 (2009) 『(이덕주 교수가 쉽게 쓴) 한국 교회의 이야기』, 서울: 신앙과지

성사.

최효은 (2016a) 『번역사 연구방법을 통한 ‘단권 성경주석’(1934)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6b) 근대 기독교출판번역사 조사: 번역주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2): 191-212.

Harmon, Robert (1981) *Elements of Bibliography*, Metuchen, N.J.; London: Scarecrow Press.

Nida, Eugene Albert (1994) ‘The Sociolinguistics of Translating Canonical Religious Texts’,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 7(1): 191-217.

Pym, Antony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Abstract]

Translator study:

Hyeonggi Yu, a translator of Christian texts in a modern sense

Choi, Hyo-Eun
(Hando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 the historical value of Hyeonggi Yu as a translator of Christian texts. With a series of fact-finding and analysis, the author verifies that he is “one” in a modern sense with the following four reasons: (Here, “modern” means “possessing more of Today’s general attributes.”) Firstly, he did direct-translation from the English source texts as early as the year 1930, not relaying from Japanese or Chinese translation of English sources, which was more prevalent translation custom of the time. Secondly, his translation works cover various sub-categories of Christian texts, ranging from theological texts like Bible commentaries to popular books like a biography of a Saint’s. Thirdly, he was one of the relatively-rare Korean translators of Christian texts in the first half of the 20’s century when approximately 70% of Christian translators were foreign nationality. From the perspective that considers BA translation is more proper in translation process, he certainly can be viewed as a proper translator of English-to-Korean translation since he was Korean. Lastly, compared to other Korean translators in Christian translation practice, he is exceptional in the volume of works and the consistency of dedication to the field. In the course of the study, the author defines the meaning of Christian texts, translation of Christian texts, and finally, a translator of Christian texts. Also, methodologically, the author proposes the bibliographical approach for the historical study of translation.

▶ Key Words: translator study, Hyeonggi Yu, translation of Christian texts, translation of special texts, translation history

최효은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 외래강사

force_c@naver.com

관심분야: 기독교 번역, 번역사(翻譯史) 연구, 번역자(翻譯者)

논문투고일: 2017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2일